

보도일시 | 2026년 5월 1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추리 어드벤처 “장생포 비밀수사단 시즌2”

장생포 아트스테이서 펼쳐지는 몰입형 추리극, 비밀수사단을 모집한다

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이틀간 장생포 아트스테이에서 시민 참여형 몰입 콘텐츠 「장생포 비밀수사단 시즌2 : 장말순 할매 실종사건, 나비의 증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공연·전시·체험 요소를 결합한 스토리텔링 기반 몰입형 추리 어드벤처로, 참여자들이 직접 ‘비밀수사단’이 되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야기는 장생포의 오래된 슈퍼를 운영하며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장말순 할매’의 갑작스러운 실종에서 시작된다. 현장에는 수상한 단서들만 남겨져 있고,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세 명이다. 장생포 슈퍼의 단골손님, 마을 재개발 추진 관계자,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아들까지 저마다의 사연과 동기를 지닌 용의자들 속에서 참여자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된다.

특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장말순 할매가 돌봐주던 길고양이 ‘나비’로 설정돼 흥미를 더한다. 참여자들은 공연 속 인물들의 증언과 공간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바탕으로 추리 미션과 탐색 활동을 수행하며 범인을 밝혀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사 기간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고양이 발바닥 모양의 레진 키캡·키링 만들기 체험과 고양이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 등 참여형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운영된 「장생포 비밀수사단 시즌1 : 사라진 호작도의 비밀」의 후속작이다. 시즌1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문화예술창작촌의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문화예술창작촌 관계자는 “이번 시즌2는 장생포만의 지역성과 스토리텔링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직접 사건 속 주인공이 되는 몰입형 콘텐츠로 기획했다”며 “가족,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리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생포 비밀수사단 시즌2 : 장말순 할매 실종사건, 나비의 증언」은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5월 12일(화)부터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예술창작촌(☎ 052-270-9351/9353)을 통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8.

---